

〈황부인전〉 구조 연구

—과제 제시와 해결 구조를 중심으로—

왕 매 용*

Ⅰ 차례

- I. 머리말
- II. 〈황부인전〉의 과제 제시—해결 구조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소설, 〈황부인전〉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황부인전〉은 단편소설로 〈삼국지연의〉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기초로 하여 재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황부인전〉의 이본 중에서 〈황부인전〉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가장 널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창서관본 〈황부인전〉을 주된 자료로 하여 〈황부인전〉을 분석하였다.

〈황부인전〉의 구조는 천상의 과제 제시와 지상의 과제 해결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황부인전〉의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나가는 원리는 천상계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간계나 지상계의 존재가 해결하는 방식이다. 천상계의 과제는 황부인과 제갈공명 두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공간적 층위 속에서 황부인과 제갈공명 두 사람에게 몽조의 형태로 천상계의 과제가 주어졌다. 황부인의 과제는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의 형태로 주어졌으며, 제갈공명의 과제는 전생에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해결 형태로 주어졌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 중 한 가지는 일치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을 맺어야 한

* Wang Mei Rong, 대만 문화대학 강사

다는 것이다. 제갈량과 황부인의 공통 과제인 결연은 제갈공명의 소극적인 회피와 도주는 황부인의 적극적인 설득 및 방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결된다. 그 후 제갈량은 남은 과제인 공명 성취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고, 황부인은 그를 돕는 보조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이 〈황부인전〉은 천상계의 과제 제시와 인간계에서의 과제 해결이라는 과제 제시-과제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주인공 황부인의 과제 제시-과제 해결은 단일한 것인 반면 제갈공명의 과제 제시-과제 해결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황부인전〉의 전체 내용은 남성인 제갈공명보다 여성인 황부인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 여성 주인공의 과제는 단일하고 남성 주인공의 과제는 이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후행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황부인전, 구조, 천상의 과제, 지상의 해결, 결연

I. 머리말

〈황부인전〉은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전소설이다. 〈황부인전〉은 국문본으로, 필사본과 활자본이 있다. 필사본은 〈황처사전(黃處士傳)〉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활자본은 〈황부인전〉이라는 표제로 영창서관·한흥서림·세창서관 등에서 간행되었다.

황부인의 성은 '황'이고 이름은 '月英' 또는 '碩'이라고도 한다. 황부인은 蜀나라 사람으로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제갈량의 부인이다. 〈황부인전〉은 단편소설로 〈삼국지연의〉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기초로 하여 재창작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황부인전〉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반부는 황부인과 제갈공명의 결연담이 주를 이루고, 후반부는 유비의 삼고초려부터 신야 싸움까지가 주를 이룬다.

〈황부인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영웅소설 혹은 군담소설의 일반론적인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끌어들이 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대부분이 범박한 논의에 그쳤다. 이 중 특기할 만한 논저인 신기형의 책¹⁾은 〈삼국지연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안, 번역된 소설들과 〈황부인전〉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황부인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해당하는 김인희의 논문²⁾에서는 〈황부인전〉의 서지자료를 연구하였고 이본간의 관계를 밝혔다. 본고에서는 〈황부인전〉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가장 널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창서관본 〈황부인전〉을 주된 자료로 하여 〈황부인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황부인전〉에서는 세 층위의 공간이 나타난다. 상제가 주재하는 천상계가 최상위에 있고, 황처사와 황부인 등 신선에 가까운 삶을 살며 신술을 발휘하는 인물이 활동하는 중간계가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에 존재하고 있고, 제갈공명, 유비, 조조, 관우, 장비 등이 활동하는 세계인 지상계가 가장 아래에 있다. 본고에서는 〈황부인전〉의 구조에 대해, 이 세 층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제 제시-해결 구조로 분석하고자 한다. 천상계에서 내린 과제를 지상의 존재들이 인지하고 수행해 나가는 구조로 살펴봄으로써, 〈황부인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II. 〈황부인전〉의 과제 제시-해결 구조

1. 3층의 공간 배경

〈황부인전〉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상제가 활동

1)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보고사, 1991, p.396.

2) 김인희, 「〈황부인전〉 연구」, 『도솔어문』 15집, 단국대 어문학부, 2001.

하고 있는 천상계가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고, 황처사와 황부인 등 신선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신술을 발휘하는 인물이 활동하고 있는 중간계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으며, 제갈공명, 유비, 조조, 관우, 장비 등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인 지상계가 그 아래 존재하고 있다. 즉, 과제를 제시하는 세계와 과제를 해결하는 세계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천상계	상제(옥제), 공명성, 일위노인(노선)의 세계
중간계	황처사, 황부인이 활동하는 세계
지상계	제갈공명, 유비, 조조, 관우, 장비 등 인간이 활동하는 세계

이 가운데, 황처사와 황부인은 그 능력면에서 천상계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그 활동 공간이 지상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상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황부인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중간계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아래와 같다.

- ① 공명이 마춤 한가하야 초당에 한좌라가 오슈가 방농하야 일몽을 어드니 일위로인이 창안 학밭노 치운을 명에하야 내려와 당전하야 왓 공명성은 별내무양하나 공명이 급히 몸을 니러 마자 레필 좌정후 공명이 문왓 존성은 뒤시완더 어더 계시며 무슴 그르치실 일이 잇서 루디에 왕넘하시노 하물며 공명성이라 하시른 엇진 연괴니잇고 료선 왓 그더 전성지스를 아지 못하노도다 삼백 년 전에 인간에 탄상하야 성숙 잘 만나지 못하야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에 전치못하얏기로 상데 불상이 너기스 인간에 내어 보내어 성주를 도아 일신이 현달하고 공명부귀를 누리며 명슈죽박하고 화현린각하야 일흠이 천츨에 민멸치 아니케 하야 계신지라³⁾

3) 〈황부인전〉, pp.3~4.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황부인전〉의 내용상 가장 정본에 가까운 세창서관본을 근거로 하였다. 편의상 이후 각주에서는 출전을 밝힐 때 세창서관본이라는 표기 없이 바로 〈황부인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② 빅면셔생이오 셴셔약질이라 이런 디훙을 만나니 엇지 놀납지 아니호리오
 혼빅이 비월호야 아모리 훙 줄 모르고 정신이 혼미호야 발을 붓친드시 셋
 더니 (중략) 집 압히 창송록죽이며 청계벽석과 싸허난 봉만이 금슈병을
 돌넛는 듯호야 경기 결승호미 무릉도원 갓튼 곳이 일호도 다르지 아닌지
라4)
- ③ 스스로 생각호되 저러듯호 고은 성음과 레모의 유순호미 성니숙완이오 절
디가인이라도 이에서 더하지 못홀지라 가련호도다 저갓튼 훙모를 쓰고 출
세호미 무쇼 전생 죄악인고 아마도 전일 몽중 로선에 일은 말이 옥이 진
 토에 드렸스니 진이를 버스면 광치 찬난호리라 호엿스니 (중략) 첩이 전
 성죄악으로 훙측호 허물을 쓰고 출세호야 부모의 근심과 소첩의 신세를
 상제게옵서 궁축히 녀기스 금야에 공중으로서 홀연 학녀일성이 나더니 일
위선관이 나려와 옥제칙지를 전호며 대조만호 환약 일기를 주며 일호되5)

위의 예문 중에서 ①의 “공명성”, “일위로인”, “로선” 등과 ③의 “일위선관”, “상제”, “옥제” 등은 천상계의 존재에 해당한다. 천상계는 “전성지스”를 알고 있으며, “툰슈”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다스리며, “옥제”의 명에 따라 죄악을 벌주거나 용서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간계에 해당하는 황처사, 황부인의 세계는 전생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세계이다. “부인의 신출귀몰호 지조는 고금에 회한호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황부인은 신술에 있어서도 지상계의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③의 “고은 성음과 레모의 유순호미 성니숙완이오 절디가인이라도 이에서 더하지 못홀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황부인은 외모를 제외하고는 목소리나 예모가 절대가인이라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중간계는 지상계의 평범한 공간과는 다른 곳으로 묘사된다. 그 예를 “선

4) 〈황부인전〉, pp.9~10.

5) 〈황부인전〉, pp.11~12.

학이 정중에 나라와 곡조를 맞조아 춤을 추니 봉니방장에 맑은 선경이 이에 서 더흐미 업고 계전백혜스를 시짜라 푸여 암향을 토흐니 경기절승흐미 도원과 방불흐더라”고 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 중간계의 음식 또한 “니러구러 날이 저물믈 석반을 차려나오니 진세참품과 특이흐자 향기롭고 괴이흐미 시속 음식과 다르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계와는 사뭇 다른 맛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상계에서 살아가는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천상계의 지배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중간계 인물의 능력에 놀라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 중 중간계의 인물과 결혼함으로써 중간계에 근접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제갈공명이다.

이와 같이 <황부인전>은 천상계, 중간계, 지상계로 나뉜 공간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2. 과제 제시 양상

<황부인전>의 구조는 과제-해결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즉 <황부인전>은 천상의 과제 제시와 지상의 과제 해결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황부인전>의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나가는 원리는 천상계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간계나 지상계의 존재가 해결하는 방식이다. 천상계의 과제는 황부인과 제갈공명 두 사람에게 주어진다. 황부인의 과제는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의 형태로 주어지며, 제갈공명의 과제는 전생에 채우지 못한 욕망의 해결 형태로 주어진다.

1) 황부인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

<황부인전>에서 황부인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는 전반부에서 나타난다.

이 과제는 꿈의 형태로 나타났다. 황부인은 전생에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驕慢放恣한 죄를 지었다. 그 인과응보로 황부인은 흉측한 허물을 쓰고 세상에 나왔다.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황부인은 자신의 흉한 외모에 대한 수모를 겪어야 한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첩이 전생죄악으로 흉측한 허물을 쓰고 출세하여 부모의 근심과 소첩의 신세를 상계계우셔 긍족히 녀기스 금야에 공중으로서 홀연 학녀일성이 나더니 일위선관이 내려와 옥제척지를 전하며 대초만흔 환약 일기를 주며 일으되 네 전생에 지은 죄가 있는데 화용원티 너모 빠허난 고로 방자교만흔 죄뿐이라 특별이 스허사 넷 얼굴을 도로 회복케 하시느니 하후는 너의 가군으로 더부러 무흠이 화락하라 하고 올라가거늘⁶⁾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황부인의 흉한 모습은 전생과 대조적이다. 전생에 빼어난 외모로 남을 괴롭혔으니 현생에서는 흉한 외모 때문에 남에게 괴롭힘을 받아야 그 잘못이 감해질 수 있다는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괴롭힘만 받는다고 천상계의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천상계의 과제는 전생에서 황부인과 사제지의를 맺고 있었던 도인이 꿈에 나타나서 한 말 속에 제시되어 있다.

네 형용을 그리고 너의 외가로 다니라 갈 제 타고 가는 교즈에 걸고 가면 중노에서 필연 물을 스람이 잇스리니 여차 더담하면 그 스람이 반드시 구훈후리니 이는 텃정가위라 네 전생에 월궁향아로 화용원티 녀러 선녀 중생 허난고로 마음이 방자교오하여 상테게 득죄하여 저긋흔 흉모를 써스나 텃정인연을 만나면 쾌락 안향홀 거시오 또 신훈초일에 너의 군지 너의 상피 추악함을 보고 마음이 불호하여 즉시 제 집으로 도라가라 홀 거시니 네 규슈의 슈치를 도라보지 말고 구지 붓 들고 낫치 마라 가지 못하게 하면 자연 도흔 일이 잇슬 거시오 네 슈단과 괴특흔

6) 〈황부인전〉, p.11.

지조로 엇지 그 스람을 즐겁게 못하리오 나는 전세에 너와 스제지의 잇기로 특별
이 와 니르느니 브디 가르치는 디로 하라 하교⁷⁾

도인에 의하면, 황부인은 전생에 월궁 향아로 화용월태를 가졌으나 여러 선녀와 중생을 괴롭힌 까닭에 마음이 방자 교오하여 상제께 득죄하여 흉모를 썼고,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을 만나면 좋을 것이라 한다. 또 신혼 첫날에 남편이 자신의 추한 용모를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할 것인데, 이때 규수의 수치를 돌아보지 말고 굳게 붙들고 놓지 말아 못 가게 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 천상계의 과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천상계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자신의 추한 용모를 보고 돌아가려 할 때 이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밝힌 천상계의 과제, 즉 추한 용모로 태어나 그로 인해 결혼 상대가 없어 혼기가 차도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것까지 합하면, 황부인에게 주어진 천상계의 과제는 모두 세 가지인 셈이다.

2) 제갈공명에게 주어진 과제

제갈공명에게 천상의 과제는 잘못에 대한 응징이나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에서 풀지 못한 욕망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는 해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명이 마춤 한가하야 초당에 한좌라가 오슈가 방농하야 일몽을 어드니 일위
로인이 창안 학발노 치운을 명에하야 나려와 당전하야 왈 명성은 별내무양하나
공명이 급히 몸을 니러 마자 레필 좌정후 공명이 문왈 존성은 누시완디 어디 계
시며 무슴 그르치실 일이 잇서 루디에 왕님하시뇨 하물며 공명성이라 하시믄 엇

7) <황부인전>, p.2

진 연피니잇고 로선왈 그더 전성지스를 아지 못호는도다 삼백 년 전에 인간에 탄
 성호야 성숙 잘 만나지 못호야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에 전치 못 호얏기로 상대
 불상이 너기스 인간에 내여 보내여 성주를 도와 일신이 현달호고 공명부귀를 누
 리며 명수죽빅호고 화현린각호야 일흠이 천추에 민멸치 아니케 호야 계신지라⁸⁾

본래 천상계의 존재였던 제갈공명은 300년 전 지상계에 태어났으나, 시
 대를 잘못 만나 공명을 후세에 떨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상제가 그를 다시 지상계에 내려 보내 훌륭한 임금을 도와 일신이 현달하고
 공명부귀를 누리며 이름이 천추에 떨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다른 적강형 소
 설과 달리 〈황부인전〉에서 제갈공명이 적강한 이유는 전생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결함 때문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 전생의 결함을 채우기 위해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왔다는 것이 다른 적강형 소설과 구별되는 점
 이다. 즉, 적강의 이유가 곧 제갈공명에게 주어진 천상계의 과제가 된다. 그
 것은 이 작품에서 ‘유비’로 해석할 수 있는 “성주”를 도와 부귀공명에 대한 전
 생의 숙원을 푸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天定緣分을 맺는 일이다. 그 인연 있는 자의 용
 색이 醜陋하나 세간에 모르는 것이 없으며 계책이 뛰어나고 무궁한 조화를
 가졌으니 嫌疑하지말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어기지 말라고 한다. 만약에
 이 인연을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을 받을 것이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제갈공명이 하늘로부터 받은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천상의 공명성이 하강한 존재로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공명
 을 현생에서 이루는 것이다. 둘째, 하늘이 맺어준 연분에 해당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천상의 과제는 황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꿈속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는 몽조의 형태로 주어진다. 다만 그

8) 〈황부인전〉,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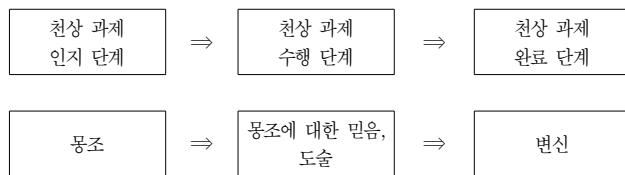
노인의 정체(正體)가 제갈공명(諸葛孔明)의 경우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데 반해, 황부인(黃婦人)의 경우에는 “나는 전세(前世)에 너와 스제지(斯濟之)의 잇기로 특별이 와 니르느니 브디 가르치논 디로 흐라⁹⁾”라고, 노인이 황부인의 전생(前身) 스승(師傅)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다르다.

3. 지상의 과제 해결 양상

1) 황부인의 과제 해결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천생연분(天生緣分)의 경우 善男善女(善男善女)의 결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황부인전〉(黃婦人傳)의 경우에는 선남추녀(선남추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고전소설과 다른 면을 보인다.

〈황부인전〉에서 두 주인공에게 공통의 과제에 해당하는 선남추녀의 결합을 통한 천생연분의 성취 양상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뤄진다.



(1) 과제 인지 단계

첫째 단계는 천상의 과제를 인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갈공명과 황부인이 몽조를 통해 과제를 인지하게 된다.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지상의 과제 해결 작업이 시작된다. 천상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몽조라는 것과 꿈에 의해 등장인물이 자신의 운명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9) 〈황부인전〉, p.2.

꿈에 의한 계시는 설화에서도 등장하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꿈에 나타난 배필〉¹⁰⁾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 정승의 딸이 하늘에서 내려온 곽만경이라는 사람에게서 학 세 마리를 받는 꿈을 꾸 뒤, 혼기가 차서 결혼하라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기어이 그 사람을 찾는다. 알고 보니 곽만경은 금방 상처(喪妻)한 사람인데다가 나이는 칠십이 넘었고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는 불품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승의 딸은 병신이든 바보든 상관 없이 곽만경과 결혼한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곽만경의 오줌을 받아 자신의 오줌과 섞어 천상배필임을 확인하고 결혼한다. 그 결과 세 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모두 3정승이 되었다고 한다.

설화의 내용은 꿈을 계기로 하여 천생연분을 만난다는 점에서 〈황부인전〉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정승의 딸이라는 신분을 지닌 여성 주인공이 나이도 많고 결혼 이력이 있으며 불품없는 가난뱅이에게 시집을 가려 한다는 비상식적인 행위의 필연성을 꿈으로 보완하는 점에서도 〈황부인전〉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설화의 내용과는 성별의 차이만 있을 뿐, 〈황부인전〉에서도 제갈공명과 같은 훌륭한 재능을 지닌 남성 주인공이 황부인처럼 추한 용모의 여성 주인공에게 청혼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작자는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몽조를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처럼, 몽조는 사건의 전개에 필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과제 수행 단계

둘째 단계는 천상의 연분을 찾아 결연을 성취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여기

10) 박선자 구연, 최정여, 강은혜 조사, 초전면 설화 11, 〈꿈에 나타난 배필〉,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5책, pp.163~166.

서 남녀 주인공의 태도가 양분된다. 그 원인은 황부인의 추한 용모이다. 혼인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그것이 몽조의 형태로 알려졌지만, 그 혼인을 가로막는 것이 황부인의 추한 용모이다. 용모 때문에 황부인은 난관을 겪게 되고 제갈공명은 하늘의 재앙을 각오하면서 황부인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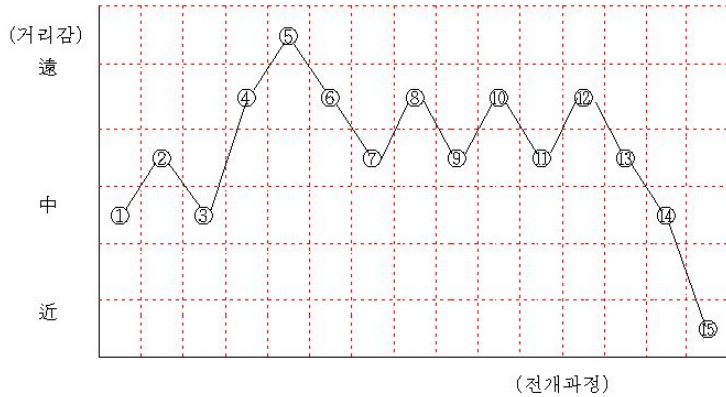
제갈공명과 황부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천상의 과제는 천생연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황부인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 수단으로 신묘한 도술과 간곡한 설득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서 제갈공명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몽조에 따르기는 하지만, 황부인의 용모를 보고서는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뀐다. 처음에 황부인의 용모를 그려놓은 족자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심지어 그는, “저런 추악 흉물노 처실을 삼아일실에 상허리오 비록 부귀를 혼다흐나 무어시 귀허리오”¹¹⁾라고 하면서 주저한다. 그러나 “몽중지역의 벽옥이 진토에 못치시니 진인의 버셔나면 광채 찬난 허리라 흐엿시니 혹 즈 교즈 속에 옥인이 잇는가”¹²⁾라고 하면서, 교자 안에 있는 여인은 미인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제갈공명이 황부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꿈속에서 들은 예언이었다. 또한 간접적인 이유는 황부인의 아버지인 황처사였다. 황처사의 용모가 거룩하다고 하니 그 딸도 흉한 용모일 리 없다는 추측과 함께, 황처사가 자기 사위의 지인지감을 시험하려고 저런 족자를 내걸었으리라고 추측한 것이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꿈속의 예언대로 결혼을하기로 결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예언대로 결혼을 한 후의 제갈공명의 반응이다. 제갈공명은 결혼을 하는 날, 이런 박색은 평생 처음 본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 한다. 그러나 제갈공명의 노력은 황부인에 의해 계속 저지된다. 이러한 몇 차례의 실랑이를 통해 제갈공명과 황부인의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

11) <황부인전>, p.5

12) <황부인전>, p.5.

워지기도 한다. 사건이 반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도 변화한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은 제갈공명이 아직 황부인의 추한 용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상황의 감정적 거리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②는 황부인의 용모를 그려놓은 족자를 본 후 제갈공명이 느끼는 감정적 거리에 해당한다. “빅옥이 진토에 못쳐시니 진이의 버셔나면 광채 찬난호리라 흐렸시니 혹 즈 교즈 속에 옥인이 잇는가”¹³⁾는 몽조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적 거리는 멀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③에서 제갈공명은, 황처사의 용모와 능력에 대한 소문을 기억하며 이것이 어찌면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꿈속의 예언을 따르기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갈공명의 마음이 황부인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중간적 상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④에서는 제갈공명이 황부인의 추한 용모를 직접 확인하는 대목이 나온

13) 〈황부인전〉, p.5.

다. 제갈공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감정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 하늘의 재앙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라니 그 감정적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황부인이 제갈공명을 만류하다가 그의 옷자락을 찢고 만다.

⑤는 제갈공명이 추한 용모에 염치마저 없는 황부인에게 극도의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해당한다. 게다가 바느질을 하는 모습조차 곱지 않다. 굵은 바늘에 굵은 실로 드문드문 깎는 모습에 마음은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만다.

그나마 ⑥에서, 신부가 탁월한 침재를 발휘하여 상한 의복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은 것을 본 제갈공명은 분심을 다소 가라앉힌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감정적 거리가 멀다. 이러한 동안 시간은 흘러 새벽이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황부인이, 날이 밝은 후 요기하고 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한다.

⑦에서는 제갈공명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도 떠나겠다는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아직 먼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⑧은 황부인이 음식을 장만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제갈공명은 황부인의 음식 차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시 멀어졌다. 닭을 손수 잡고 불을 피워 불 속에 묻어 구우며 찬밥을 뭉개어 떡을 만들고 부엌으로 가져가는 형상이 흉하고 누추한 까닭에 제갈공명은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더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⑨는 황부인이 차린 음식이 인간세상의 음식과 같지 아니하고, 처음 만들 때는 그리 누추하던 것이 막상 먹어 보니 매우 정결하고 찬란한 까닭에, 제갈량이 기이하게 여겨 그것을 다 먹는 대목이다. 여기서 조금 마음이 가까워진다.

⑩에서는 제갈공명이 다시 황부인을 떠난다. 음식을 먹기는 했으나 얼굴

을 대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던 제갈공명이 소변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집을 나선다.

⑪에서는 집을 떠난 제갈공명이 범을 만난다. 꿈쩍달짝 못하고 있을 때 황부인이 나타나자 제갈공명이 크게 반기며 구해 주기를 청한다. 여기서 황부인에 대한 제갈공명의 마음이 다소 가까워진다.

⑫에서 제갈공명은 황부인의 신술에 굴복하는 것이 대장부의 수치라 생각하고 다시 집을 떠난다. 마음의 거리는 다시 멀어진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황부인의 신술에 걸려 같은 길을 맴돌고 만다.

⑬에서는 제갈공명이 황부인의 신술에 못 이기고 돌아온다. 비록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으나 마음을 주체적 의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황부인과 제갈공명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진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⑭에서 제갈공명이 좌정한 후 신부를 향하여 정색하여 꾸짖자, 황부인은 전생 업보와 부모의 근심, 몽중 신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황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은 감동하였다. 이 대목에서는 마음의 거리가 이전에 비해 가까워지기는 하나 아직 중립 상태이다.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하여 꿈의 계시대로 나중을 보리라 결심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거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부분은 ⑮이다. 황부인이 변신하여 미인으로 바뀐 대목인데, 이 부분은 셋째 단계에 해당하는 대목이므로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과제 완료 단계

앞에서 살펴듯이, 과제를 수행해 가는 동안 마음의 거리가 두 단계 이상의 급변을 보인 부분은 두 군데에 불과하다. 제갈량이 황부인의 추한 외모를 확

인하는 ⑤와, 황부인이 아름답게 탈바꿈한 것을 제갈량이 확인하는 ⑮이다.

마음의 거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부분은 ⑮이다. 잠에서 깨어 보니 황부인의 모습이 바뀌어 홍모박색이 간 데 없었다. 밤새 한 仙官이 내려와 옥제의 勅旨를 전하며 대추만한 환약 한 개를 주고 간 것이었다. 그 환약을 먹은 황부인은 경국지색의 미모로 변신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운우지락을 이루니, 지금까지의 마음의 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모이다. 외모에 대한 반감은 황부인의 바느질 솜씨, 음식 솜씨, 신묘한 도술, 효심 등으로도 감할 수 없다. 단지 한 단계씩의 심리적 거리의 변화는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결국 외모였다.

⑮ 이후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황부인과 제갈공명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천상의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황부인은 전생의 죄로 벌을 받아 추한 용모로 태어났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이겨냄으로써 천상의 용서를 받았다. 또한 제갈공명과 결혼하라는 천상의 계시를 기어이 이루었으니, 천상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한 셈이다.

제갈량의 입장에서, 몽조대로 황부인과 천정연분을 완성했으니 천상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표를 참고로 할 때, ①에서 ⑬까지의 단계에서는 제갈량의 자의보다 타의에 의한 것이 더 많다. 그렇지만, ⑭와 ⑮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갈공명 또한 황부인과의 결혼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게 된다.

이처럼, 제갈공명과 황부인의 공통 과제는 제갈공명의 소극적인 회피와 황부인의 적극적인 설득 및 방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결된다.

2) 제갈공명의 과제 해결

앞서 결연 성취라는 천상의 과제를 지상에서 황부인과 제갈공명이 해결하

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천상의 과제는 아직 모두 성취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갈공명의 입신양명이라는 천상 과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에게 제시된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황부인을 찾아서 결혼하고 그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입신양명하여 공명을 떨치라는 것이었다. 앞의 과제는 이루었으나 뒤의 과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황부인의 과제 또한 완전하게는 해결되지 않았다. 황부인의 남은 과제는 제갈공명의 꿈에 나타나 있다. 제갈공명의 꿈에 이르기를, 황부인이 용모는 추루하나 천정연분을 맺을 상대라 하였다. 또한 황부인은 세간에 모를 것이 없고 秘計와 무궁한 조화를 가졌다고 하였다. 그러하니 제갈공명이 황부인의 덕행에 힘입어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리라는 것이었다. 즉, 제갈공명에게는 입신양명하여 공명을 떨친다는 과제가 남았고, 황부인에게는 비계와 무궁한 조화로 제갈공명을 돕는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제갈공명과 황부인은 이 과정에서 결연 성취의 과제를 해결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앞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황부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반해, 개인적 과제를 해결할 때에는 제갈공명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갈공명의 공명 성취 과정에서 황부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점은, 황부인의 결연 성취 과정에서 제갈공명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을 보인 것과 대칭을 이룬다.

(1) 공명 성취의 과제 인지 단계

제갈공명이 천상의 과제 중 하나인 공명 성취 과제를 인지하는 것은 결연 성취 과제를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앞서 결연 성취의 과제 인지 단계에서 제갈공명과 황부인이 몽조를 통해 동시에 천상의 과제를 인지했던

것과 달리, 공명 성취의 단계에서는 제갈공명의 꿈에서만 과제가 나타난다.

일몽을 어드니 일위로인이 창안 학발노 치운을 명에호야 내려와 당전호여 왈
공명성은 별내무양호나 공명이 급히 몸을 니러 마자 레필 좌정후 공명이 문왈 존
성은 뉘시완디 어디 계시며 무슴 그르치실 일이 잇서 루디에 왕님호시뇨 호물며
공명성이라 호시몬 엇진 연괴니잇고 로선 왈 그디 전성지스를 아지 못호는도다
삼백 년 전에 인간에 탄싱호야 성숙 잘 만나지 못호야 아름다운 일흠을 후세에
전치못호얏기로 상데 불상이 너기스 인간에 내어 보내여 성쥬를 도아 일신이 현
달호고 공명부귀를 누리며 명슈축빅호고 화현린각호야 일흠이 천쥬에 민멸치 아
니케 호야 계신지라¹⁴⁾

제갈공명이 꿈에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은 창안학발로 채운을 타고 내려와 공명에게 전생의 일을 가르쳐 준다. 제갈량은 본래 공명성이었고 300년 전에 인간계에 내려왔다가 공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숙원을 해결하라는 천상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앞서 황부인과 제갈량 두 사람에게 주어진 천상 연분의 성취 과제가 작품 전반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제갈공명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 즉 공명의 성취 과정은 작품 후반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공명 성취의 과제 수행 단계

제갈공명과 황부인의 공명 성취 과제 수행 단계는 통과제의의 구조와 유사한 과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통과제의의 구조를 차용하여 공명 성취의 과제 수행 단계를 살펴도록 하겠다.

그들의 과제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14) <황부인전>, pp.3~4.

- ㄱ. 황부인과 황처사를 만나 도술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 ㄴ. 성주 유비를 만나 그의 인정을 받는다.
- ㄷ. 뛰어난 병법으로 신야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

이 과정에서, 황부인과 황처사는 제갈량의 능력을 깨우치고 키우는 스승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갈량은 능력을 키움으로써 바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지만, 관우와 장비 등은 신야에서 이긴 뒤에야 비로소 그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

제갈량과 황부인이 과제를 성취하는 과정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제 성취 과정에서 난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부인에게 추한 용모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듯이 제갈공명에게도 관우와 장비 등의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 말하는 통과제의와 유사한 과정이다. 통과제의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식의 대부분은 출생·성장·생식·죽음 등의 생물학적 단계와 결부되어 있고 또 다른 의식은 특별한 단체나 집단에의 가입 등 전적으로 문화적인 변화를 기념하는 의식이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이며 민속학자인 아르놀트 반 헤네프는 모든 의례가 분리·추이·통합 등 3단계로 구성됨을 보여주어 다양한 의례간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강조했다.¹⁵⁾ 헤네프는 이 3가지 범주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또는 모든 의례에서 똑같은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러한 범주가 보편적인 형태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제1단계인 분리는 개인을 이전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단절시키는 상징적 행위를 수반한다. 낡은 신분은 새로운 신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없어진다. 제2단계에서 의례의 주체,

15) 반 헤네프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pp.40~41 참조.

즉 '통과자'는 모든 지위 또는 역할의 징표를 벗어 버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정지된 상태 또는 미래로 향하는 입구로 들어간다. 이 단계는 재생을 기다리며 어두운 자궁 속에 있는 상태 또는 죽음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 단계에서 의례의 주체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종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통과제의의 과정으로 <황부인전>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천상의 존재인 공명성이 지상에 제갈공명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제1단계인 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써 제갈공명이라는 개인은 천상 존재라는 이전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단절된다.
- ㄴ. 제갈공명은 공명에 대한 성취과제를 이루기 위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통과제의에서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례의 주체, 즉 '통과자'에 해당하는 제갈공명은 미래의 입신양명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난관으로 들어간다. 난관은 황부인과 황처사를 만나 도술을 배울 기회를 얻는 것,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만한 聖主를 만나 그의 인정을 받는 것, 뛰어난 병법을 발휘하여 신야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등이다. 천상에서 그가 지녔던 지위는 이 단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갈공명에게 있어 이 단계는 '입신양명'이라는 의미에서의 재생을 기다리며, '주위 사람들의 불신'이라는 어두운 자궁 속에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
- ㄷ. 제갈공명은 뛰어난 전략으로 신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주변 사람들의 불신에서 벗어나 軍師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것이 제3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의례의 주체에 해당하는 제갈공명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된 셈이다.

이는 황부인의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ㄱ. 천상의 존재인 월궁 항아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지상에 추한 용모를 지닌 황부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제1단계인 분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로써 황부인이라는 개인은 천상 존재라는 이전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단절된다.

- 나. 황부인은 제갈공명과 결연하여 천상의 연분을 이어야 하는 천상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통과제의에서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례의 주체, 즉 '통과자'에 해당하는 황부인은 미래의 脫殼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난관으로 들어간다. 난관은 제갈공명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제갈공명의 인정을 받는 것, 뛰어난 도술을 발휘하여 제갈공명을 입신양명하게 돕는 것 등이다. 천상에서 그가 지녔던 지위는 이 단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부인에게 있어 이 단계는 '천상연분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의 재생을 기다리며 '추한 용모'라는 어두운 자궁 속에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
- 다. 황부인은 뛰어난 기지와 도술로 제갈공명의 회피를 극복하고 마침내 탈각하여 아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것이 제3단계에 해당하는다. 이 단계에서 의례의 주체에 해당하는 황부인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이 제갈공명과 황부인은 모두 통과제의의 형태를 통해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명 성취의 과제 완료 단계

제갈공명의 공명 성취 과제는 신야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앞서 결연 성취에 있어서도 몽조에 대한 믿음이 서사과정상 큰 영향을 주었듯이 공명 성취에 있어서도 몽조에 대한 믿음이 서사과정상 큰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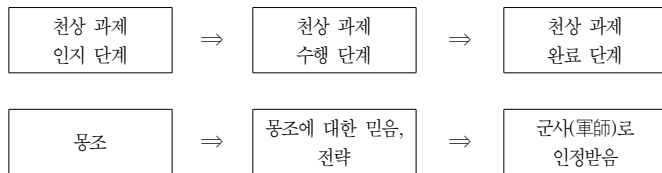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결연 성취 과제의 경우에는 도술이 과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된 반면, 공명 성취 과제의 경우에는 전략이 과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이다.

공명이 처음 군사로 임명되었을 때에 주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심지어는 제장이 공명을 보고는 “저런 년소서생이 무삼 도락과 신기묘산이 잇관디 류공이 저리도록 흑흑신고¹⁶⁾”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제장들은 공명이 아래와 같은 전략을 내자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이에 따른다.

공명이이제장을분발홀시조운을불너왈장군은삼천군을거느려나가적군을마져흑싸오며물너와적을유인하라호고관공은삼천군거느려나아가되좌편은악임이오우편은나구천이니장군은안남에미복호앗다?자룡이적을유인호야안남을지나거든슈출에불을노화시살호쇼서호고장장군은삼천군을거느려나구천에미복호앗드가관공을접응호야시살하라호고소미방미축으로연석을안히하라호고현덕을디호야굴오되쥬공은놉은언덕에서량군승패를보소서호고복호기를맞춤회관장왈우리는다나가적군을마져식살호거늘그디는네잇서무슴일을하라호노공명왈쥬공에인검이이에잇스니녕어평지말나현덕이또굴오되전일장조방이운슈유악지중호야결승천리지의호물듯지못하디만일위령제잇스면의군법시행호리라호니¹⁷⁾

이러한 치밀한 전략을 통해 공명은 자신의 공명 성취 과제를 완료한다는 점에서 황부인과의 결연 성취 장면과는 또 다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또 하나는, 결연 성취 과제에서는 변신을 통해서 과제를 완료한 반면, 공명 성취 과제에서는 군사로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과제를 완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16) <황부인전>, p.31.

17) <황부인전>, p.32.

이처럼 제갈공명의 과제 완료 단계는 제갈공명이 군사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특히 제갈공명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던 관우, 장비 등 모든 장수가 조군을 대파하고 난 뒤, 전리품을 무수히 얻어 돌아오며 서로 불러 칭찬을 한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공명에 년쇼서생이물 마지 안코 우섯더니 진것 텃하긔제라 차후는 그 녀을 어긔지 못하리로다 호고 도라와 공을 드리고 공명의 신기묘산을 일캣더라 미축 등이 쥬빅를 안비하야 헌덕 공명과 제장을 마져 승전호물 하례호고 즐길새¹⁸⁾

이와 같이 모든 장수들이 제갈공명의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을 통해, 공명 성취라는 천상의 과제가 완료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황부인전〉의 구조는 과제 제시-해결 구조이다. 〈황부인전〉은 천상의 과제를 지상의 존재들이 인지하고, 이를 수행해 나가는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황부인전〉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세 층위로 나뉜다. 상제가 활동하는 천상계가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고, 황처사나 황부인 등 신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신술을 발휘하는 인물이 활동하는 중간계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으며, 제갈공명, 유비, 조조, 관우, 장비 등이 활동하는 세계인 지상계가 맨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층위 속에서 황부인과 제갈공명 두 사람에게 몽조의 형태로 천상계의 과제가 주어졌다. 황부인의 과제는 전생의 죄에 대한 벌의 형태로

18) 〈황부인전〉, p.34.

주어졌으며, 제갈공명의 과제는 전생에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해결 형태로 주어졌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천상의 과제 중 한 가지는 일치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갈량과 황부인의 공통 과제인 결연은 제갈공명의 소극적인 회피와 도주는 황부인의 적극적인 설득 및 방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결된다. 그 후 제갈량은 남은 과제인 공명 성취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고, 황부인은 그를 돕는 보조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이, 〈황부인전〉은 천상계의 과제 제시와 인간계에서의 과제 해결이라는 과제 제시-과제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주인공 황부인의 과제 제시-과제해결은 단일한 것인 반면 제갈공명의 과제 제시-과제해결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과제는 단일하고 부차적 인물의 과제는 이중인 이유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을 여성의 우위에 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황부인전〉의 전체 내용에서는 남성인 제갈공명보다 여자인 황부인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황부인전〉의 이질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구할자본 고전소설전집,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세창서관판 구할자본 〈황부인전〉

2. 논저

권순궁, 「〈삼국지연의〉의 수용과 그 지향」, 『반교어문연구』 9, 반교어문학회, 1998.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3.
김열규, 「通過祭儀와 部落祭」, 『한국사상의 원천』, 養英閣, 1973.
김인희, 「〈황부인전〉 연구」, 『도솔어문』 15집, 단국대 어문학부, 2001.
반 헤네프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보고서, 1991.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서, 2004.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 영웅소설의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논문집』 제11집, 1980.
오출세, 『한국서사문학과 통과의례』, 집문당, 1995.
윤분희, 「여성 영웅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32집, 2002.
이유경, 『한국의 여성 영웅소설』, 태학사, 2000.
정창권,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조희웅, 『고전소설작품연구 총람』, 집문당, 2000.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서,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of Ms. Hwang's Life(Hwang Buin Jeon)

—With a focus on presenting tasks and solving structures—

Wang, Mei-Rong

Hwangbuinjeon reflects dual female consciousness and the dualistic view of the world.

Toward domestic conflicts, Ms. Hwang was quite aggressive and did her utmost efforts to make successful marriage. With social conflicts, on the contrary, she was not in the front line. Rather, she tried to solve them in a detour. In this respect, the researcher analyzed duality from the introduction of Samgukji Yeoneui into Korea via Bakssijeon (17C) to Hwangbuinjeon (19~20C).

Also, immersed in Hwangbuinjeon is a world view that the tasks of the heavenly world rule the lives of both the in-between and earthly worlds. This outlook grants inevitability to the story otherwise hard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perfect male character like Jegal Gongmyeong should marry an ugly woman like Ms. Hwang is difficult to accept unless based on a dualistic world view. The author makes use of 'heavenly tasks' in order to let the readers understand the dual world view that heavenly principles govern the earthly world.

Key Word

Hwangbuinjeon, dual female consciousness, dualistic view of the world, heavenly tasks, solve

- 논문투고일 : 2008.6.27. 심사시작일 : 2008.7.14. 심사완료일 : 2008.7.25.